

“보름전 심은 감귤묘목 도난... 80평생 처음”

작년엔 해충, 지난 겨울엔 한파로... 도, 고체사료 구입비 등 양봉농가 지원책 마련

서귀포시 서흥동 노부부 도난 피해 망연자실 “2년생 유라조생 300본 상태 좋은것만 훔쳐 가” 경찰, 인근 CCTV 확인하며 범인 검거에 총력



보름전 1본당 2만원씩 주고 구입해 심은 감귤묘목을 도난당한 과수원. 백금탁기자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보름 전에 1본당 2만원씩을 주고 구입한 유라조생 300본이 밤새 감쪽같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감귤을 훔쳐갔다는 말은 들어봤지만 이처럼 심은 감귤 묘목을 훔쳐가는 것은 80평생 처음 겪는 일입니다.”

27일 서귀포시 서흥동 소재 과수원에서 만난 80대·70대 노부부는 망연자실한 모습으로 묘목이 심어졌던 빈 자리를 바라볼 뿐이다. 도로변에 과수원이 위치해 있어 밤 시간대에 차량을 이용해 묘목을 훔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도난 현장은 군데군데 묘목이 심어졌던 자리에 흙이 움푹 패어 있었고, 뽑은 후 버리고 간 묘목을 이들 부부가 한데 모아 심어 놓은 묘

습이 목격됐다.

이들 노부부는 최근 3000만원을 들여 중장비와 인력을 동원, 30년 생 감귤나무를 모두 뽑아 밭을 정리한 후 2년생 유라조생 450본을 구매해 심었다. 매일 밭으로 출·퇴근했고 사건 전날인 지난 24일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25일 사건 당일에 이들은 집안일로 하루 밭을 가지 않았는데, 이 시점에 묘목 300본이 사라졌다.

남편 A씨는 “3300㎡(1000평)에 품종이 좋다고 소개받은 유라조생 묘목을 구입해 심었는데, (도둑들이) 밭을 돌아다니면서 잘 자란 좋은 묘목만 골라서 훔쳐갔으니 감귤 묘목에 대해 잘 아는 전문가가 틀림없다”며 “내 인생에 마지막 농사

가 될 텐데 압담해 잡도 오지 않고 눈물만 난다”고 했다. 이어 “인근 도로에 CCTV가 거의 없다는 점과 과수원 바로 옆에 주택 1곳이 있는데 마침 집주인이 없을 때 도난사건이 일어난 점 등으로 미뤄보아 사전에 절도 계획을 철저히 준비를 한 것 같다”고 했다.

부인 B씨는 “묘목이 제대로 자

라려면 4월이 오기 전에 다시 묘목을 구입해 심어야 한다”며 “어찌 심어놓은 묘목을 훔쳐갈 수 있는지 아직도 도난현장을 보고도 믿기지가 않는다”고 했다.

도난 신고를 접수한 서귀포경찰서는 지난 26일 현장조사와 함께 인근 CCTV 등을 확인하는 등 범인 검거에 나서고 있다. 백금탁기자



오영훈 지사와 임무 산동성 서기가 지난 26일 양 지역간 문화·관광 교류 의견을 나누고 있다.

“교류·협력으로 엔데믹시대 함께하길”

제주도-산동성, 문화·관광 확대 의향서 체결

제주특별자치도는 중국 산동성과 문화관광 교류 협력 강화 의향서를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체결에 따라 제주도와 산동성은 문화·관광 자원을 활성화하고 교류 협력을 통한 상호교류, 이익상생,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우호협력 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실질적 교류 강화를 위해 제주도 평화국제교류과와 산동성 인민정부 외사관공실에 각각 연락 창구가 생긴다.

제주와 산동성은 2008년 5월 실무교류도시 협약을 체결해 협력 기반을 다져오고 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지난 26일 중국 칭다오시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동성 관광발전대회 개막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제주와 중국 산동성이 긴밀한 교류와 협력으로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시대의 관광을 함께 주도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또 “제주는 한국에서 독보적인 자연환경과 더불어 다양한 문화 체험, 맛있는 음식과 질 높은 쇼핑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라며 “이 자리가 양 지역이 다져온 우정과 협력의 길을 통해 더 많은 사람과 상품이 오가며 공동 번영의 역사를 함께 써나가는 힘찬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무 산동성 서기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대면 교류가 주춤했지만 앞으로 제주도와와의 모든 교류가 정상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남성마을 ‘치매안심마을’ 제주보건소 올해 신규 지정

제주시 삼도2동 남성마을이 올해 제주보건소의 치매안심마을로 신규 지정됐다.

27일 제주보건소에 따르면 치매안심마을은 치매 인식 개선을 취지로 운영하고 있다. 2019년 화북1동(화북주공 3단지 아파트)을 시작으로 2020년 삼양2동, 2021년 건입동, 2022년 외도동을 차례로 지정했다.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남성마을은 앞으로 마을 자원과 연계해 치매 예방 교육, 치매 조기 검진, 치매 예방·인지 강화 교실, 치매 환자 등록과 간호물품 지원, 치매 고위험 집중 사례 관리 등이 이뤄진다. 이와 관련 치매안심마을 기획·운영·평가에 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남성마을 마을회, 노인회, 새마을부녀회 등 유관 기관과 함께 운영위원회를 구성했다.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도내 양봉농가 500여곳 각종 피해로 어려움 겪어”

기후 위기 등에 따른 꿀벌 폐사와 실종, 전염병 발생까지 잇따르며 도내 양봉농가의 근심이 이어지자 제주도가 양봉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안)을 최근 수립했다.

도내 양봉산업 현황을 보면, 제주지역 양봉농가 수는 매년 500농가 이상으로 집계되고 있지만 생산 규모는 매년 줄어들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 양봉농가는 2019년 515곳, 2020년 521곳, 2021년 514곳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생산 규모를 보면 2019년 봉군 8만389군에서 2020년 8만803군, 2021년 7만8767군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올 겨울 두 차례에 걸친 대설(한파) 피해도 상당했다. 지난해 12월에 이어진 대설 피해로 총 54농가·4091군이 피해를 입어 약 5억5800만원의 피해액이 발생했으며, 올해 1월 이어진 대설 피해로 104농가·5129군이 피해를 입어 약 8억4600만원의 복구비가 소요됐다.

질병 발생과 새로운 해충 출현 등으로 인한 피해도 이어졌다. 제주의 경우 지난해 3월 기준 총 7만8767봉군 중 26% 수준인 284농가에서 2만469봉군이 관련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지난해 폐사 등 꿀벌피해가 잇따른 이유에 대해 적기 방제에 실패하거나, 동일한 성분이 들어있는 방제제를 반복 사용한 점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또 월동 시작시기인 지난해 11월의 경우 평년 대비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월동 전 피해가 컸던 것으로 추정했다.

이같은 상황을 고려해 제주도는 대설(한파)피해가 발생하거나 약화된 봉군 강화를 위해 고체사료 구입비 지원 등 지원계획을 수립했다. 우수품종육종사업, 6차산업형 양봉사업장 조성사업, 제주산 양봉산물 홍보지원 등도 보인다.

지원계획에는 월동 직후 벌통 관리 요령 홍보, 응에 초기방제 지도와 함께 기후변화 및 내성응에 대응하여 관행적 사양관리에서 벗어나 적절한 사양 관리를 유도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강다혜기자

숫모르 편백숲길, 전국 우수 명품숲길 선정

거진오름, 개오리오름, 견월악 등 으뜸군락과 제주마(馬)목장, 한라생태숲, 절물자연휴양림, 노루생태관찰원 등 주변 산림생태관광지와 연계한 접근성이 우수한 점도 호평을 받았다.

거진오름, 개오리오름, 견월악 등 으뜸군락과 제주마(馬)목장, 한라생태숲, 절물자연휴양림, 노루생태관찰원 등 주변 산림생태관광지와 연계한 접근성이 우수한 점도 호평을 받았다.

아울러 산림청 주최 전국 걷기 좋은 명품숲길 30선 중 제주 사려니숲길이 인제 자작나무숲길, 부산 백양산나들숲길, 예산 백제 부흥군길(3코스) 등과 함께 선정됐다.

양제윤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앞으로 국가숲길 추가 지정, 사려니숲 에코힐링 체험행사와 연계한 걷기 행사 개최 등 명품숲길이 가득한 제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다혜기자

주택·아파트·상가 빌딩

리모델링의 새로운 변화!

시설물·금속·창호·도장·방수
조경시설물·전문건설업

제주시 서광로 256, 4층

킴/건축디자인
010-4324-7080
F:064)723-1045 / E:ehdrb0064@hanmail.net

리모델링의 선두주자

濟州 리모델링

辛酉 一 祚 직원
수시모집

누수탐지·방수

누수탐지: 가스식, 청진기식 수도배관 누수정소
신축 / 중축 / 리모델링 / 화장실 리모델링
아파트 / 단독주택 전체 리모델링 / 지붕개량 /
옥상방수 / 페인트공사 / 창문 / 도어문 / 대문 교체
불박이장 / 싱크대 / 신발장 / 도배 / 장판 / 물당 시공 / 징크 공사

유품 정리해드립니다

책임시공, A/S견적무료

정성을 다하는 직접시공. 혼을 담은 책임시공

주소 | 제주시 진동로5길 9, 유진빌라 201호

친절 문의 **064.742.6234**
010.7599.6234

그랜드보청기

입춘대길(入春大吉) 물가안정 대 이벤트
보급형, 경제형, 고급형, 플래티넘 中 선택

그랜드보청기
히트브랜드 대상!!
2021 107.184 히트브랜드 대상 1위

충전형 귀속형 보청기
충전형 귀걸이 보청기

‘국민건강을 위한 상생협력제품 판매’

제주시/서귀포시 무료 방문 A/S 및 무료 청력검사
삼촌들 흔저 전화 주셔서! 기다려주세요!
〈사무실 방문시 추가 할인쿠폰 증정〉

비충전식 보청기 도내 최저가 지방
건강보험 청각장애인 지원금 및 어르신보청기 지원금 안내

NAVER에 **그랜드보청기** 를 검색해 주세요

☎ 064-725-9275
※ 그랜드보청기 전용 주차장 (무료주차)

서사라 사거리 북동쪽
시청방면 1층 삼겹구이 서광로 225 2층

심의회번호 2007-GN1-26-0155

국제보청기프라자

무료청력검사, 휴일예약, 출장상담 환영

정부지원 최고 131만원
[111만원+20만원(4년간 5만원씩 나눠서 지급)]

보상판매
27,000원 36개월 무이자 할부

작은 소리도 크게 들을 수 있습니다.
이야기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습니다.
대화를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시끄러운 장소에서도 대화가 가능합니다.
소리가 왕왕 울리지 않고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찾아오시는 길
제주은행, 한국병원, 시외버스터미널, 오리마을소, 국제보청기(국제기2층), 한라체육관, 시내수영장

대표 **임정완**

직접수리 · 당일착용
국제보청기 ☎743-7175

제주시 서광로 190 (한국병원 건너편, 국제기계 2층)